

KIA-삼성전 우천취소를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



1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됐다.

고마운 비

KIA, 선발·불펜 재정비 시간
오늘 두산전 양현종 투입 가능

야속한 비

1위 확정 못한 삼성 1승 절실
“벼룩의 간 빼먹으려 했는데...”

골치아픈 비

KIA 우천취소 벌써 세 번째
KBO 잔여경기 일정 골머리



1~5위 ‘안갯속’...감독들 “1승, 우리만큼 절실할까”

어느 해보다 1경기, 1승의 가치가 특별한 2015시즌이다. 1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됐다. 밤새 많은 비가 내렸고 오후 늦게까지 비가 그치지 않으면서 두 팀의 최종전은 다음으로 미뤄졌다. 하염없이 하늘을 울려다보던 두 팀의 표정은 답은 못 달렸다. 1승의 간절함은 같았다. 예상과 다르게 아직 매직넘버를 지우지 못한 ‘우승후보’ 삼성과 실낱같은 5강 가능성을 붙들고 있는 KIA. 경기 전 KIA 김기태 감독과 만난 삼성 류중일 감독은 “물 위에 떠있는 오리 같다”며 손으로 물을 젓는 사봉을 했다. 프

로야구 사상 첫 통합 4연패를 이룬 팀의 주장으로서 당연히 우승후보로 여겨지는 상황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였다. 특히 앞선 한화와의 두 경기에서 빼어난 2패를 당하는 등 4연패에 빠지면서 애가 타는 류중일 감독이었다. 류중일 감독의 이야기에 김기태 감독은 “우리가 더 급하다”고 더욱 격렬하게 손질을 하면서 분주하게 발을 놀리는 오리의 모습을 연출했다. 와이어드카드의 한방이 SK쪽으로 기울기는 했지만 KIA에게 포스트 시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예상을 벗어난 막바지 대결구도도 김기태 감독의 마음을 좋게 하고 있다. 잔여경기 일정이 발표됐을 때 1일 삼성, 2·3일 두산과의 3연전이 KIA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10월 일정을 소화할 때쯤이면 삼성이 1위를 확정짓고, 두산의 순위도 결정이

되면서 두 팀이 ‘가을 잔치’에 대비해 느긋하게 라인업을 운영할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시즌 종료를 코앞에 두고도 여전히 1위부터 5위까지 순위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매 경기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다. KIA에게는 속이 타는 1승이다. 우천취소에 대한 입장은 달랐다. “미안하지만 벼룩의 간을 빼먹어야겠다”며 비가 그치기를 바라던 류중일 감독의 마음과 달리 KIA에게는 아쉬울 것 없는 비였다. 1승이 절실한 KIA입장에서 승리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고마운 비였다. 1일 KIA는 좌완 입기준을 선발로 예고했었다. 지난 삼성과의 등판에서 프로데뷔 첫 승을 기록했지만 기복이 심한 신인에, 삼성은 10승에 도전하는 좌완 장원삼으로 경기를 할 계획이었다. 매직넘버를 즐기기 위해 이를 막으

삼성을 일단 피한 KIA는 2일 가장 믿을 만한 선발 양현종을 내세워 두산과의 홈 경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선발 대란으로 쉽게 돌아가던 불펜도 휴식의 시간을 얻었다. 스티븐 합류 가능성도 있는 만큼 남은 싸움을 위한 재정비의 시간이 됐다. 이날 비때문에 가장 머리가 아팠던 곳은 KBO(한국야구위원회)다. 잔여경기 일정이 발표된 뒤 벌써 KIA의 세 번째 우천취소다. 1일 광주에는 시즌 초반이었으면 일찌감치 우천취소가 결정됐을 정도의 비가 내렸다. 그러나 이날 경기 감독관은 우천취소 여부를 놓고 5시30분이 다 되도록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고 발을 굴러야 했다. 앞서 쉽게 취소해버린 경기들 때문에 KBO의 머리 아픈 고민이 있었다. 고민 끝에 내어놓은 잔여경기 일정에 따라 KIA는 우천으로 취소됐던 두산 원정을 4일 치른 뒤, 5일과 6일 안방에서 각각 삼성과 LG와 시즌 최종전을 치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관중 716만3865명 ‘신기록’

KIA 67만9118명 ‘최다’

프로야구가 역대 정규시즌 최대 관중수를 경신했다. 지난 30일 4개 구장에서 진행된 프로야구 경기에 4만3455명이 입장하면서 누적 관중수 716만3865명(평균 관객 1만205명)을 기록했다. 이는 2012시즌 기록된 역대 정규시즌 최대 관중 715만6157명을 넘어선 수치다. 10구단 체제로 시작된 올 시즌 팀당 경기수가 128경기에서 144경기로 늘어나는 등 역대 최대규모의 리그가 예상됐었다. 시즌 초반 추운 날씨로 고전을 했던 프로야구 흥행은 5월말 메르스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하락세를 보였지만 어느 해보다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순위 경쟁과 각종 진기록·신기록 등 행진 속에 지난달 27일 700만 관객을 돌파하며 그 열기를 이어갔다.

한화는 홈 21경기에서 매진(1만3000석) 사례를 이루는 등 지난해 대비 38%가 증가한 65만7385명의 관중을 기록했다. 넥센과 NC, 삼성 등이 소폭 상승한 가운데 롯데의 약진이 눈에 띈다. 9월30일까지 62만5465명이 kt위즈파크를 찾으면서 10개 구단 중 7위를 기록했다. 역대 신생팀 가운데 최고의 흥행 성적이다. 두산은 109만4381명의 관중을 안방으로 불러들이면서 역대 구단 중 최초로 7년 연속 100만 관중 기록을 만들었다. LG는 101만 1294명으로 KBO 리그 최초로 10번째 100만 관중을 달성했다. 챔피언스필드에서 두 번째 시즌을 보낸 KIA도 67만9118명(평균 9987명)의 관중을 동원하면서 지난해 세운 66만3430명의 팀 자체 관객 기록을 갈아치웠다. 올 시즌 목표로 내세웠던 72만 관중에는 4만882명 이 남았다. /김여울기자 wool@

시타도...프로암 대회도 없다

프레지던트컵 8일 인천 송도서 개막

‘박근혜 대통령이 프레지던트컵에서 시타를 할 지가 관심이다.’, ‘내로라하는 대기업 총수들이 프레지던트컵 프로암 자리를 놓고 로비가 한창이다.’ 오는 8일부터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대륙 대항 골프대회 2015 프레지던트컵 대회 개막을 앞두고 시중에 퍼진 소문이다. 박 대통령 시타 여부는 일부 언론이 기사로 다루기도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시타설이나 프로암 관련 로비설은 모두 와전되거나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됐다는 게 주최 측의 설명이다. 프레지던트컵에서는 시타도 없고 프로암도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 프레지던트컵 명예 대회장이다. 프레지던트컵 대회 창설 이래 개최 국가 행정수반이 명예 대회장을 맡는 관례에 따른 것이다. Barack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09년과 2013년 두 차례나 명예 대회장을 맡았다. 미국 대통령 가운데 제럴드 포드(1994년),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1996년), 빌 클린턴(2000년), 조지 워커 부시(2005년) 등이 프레지던트컵 명예 대회장을 맡은 바 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아버지와 아들 모두 명예 대회장을 지낸 셈이다. 2011년 호주에서 프레지던트컵이 열렸

을 때 줄리아 길라드 당시 호주 총리는 첫 여성 명예 대회장으로 대회 역사에 이름을 올렸다. 박 대통령은 여성으로는 두 번째지만 아시아 국가 원수로는 첫 프레지던트컵 명예 대회장이다. 그러나 역대 명예 대회장이 대회 현장을 방문한 사례는 없다. 명예 대회장이 시타한 사례도 물론 없다. 또 이런 난도 높은 시타를 골프에 익숙하지 않은 명예 대회장에게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실력이 보통이 아닌 부시 전 대통령 부자(父子)나 클린턴 전 대통령이 명예 대회장을 맡았을 때도 시타는 없었다. 다만 2009년 미국에서 프레지던트컵이 열렸을 때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이 티오프 순서를 정하는 동전 던지기에 나선 사례는 있다.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은 그러나 명예 대회장은 아니었다. 당시 명예 대회장은 오바마 대통령이였다. 프로암 대회 역시 열리지 않는다. 양팀 선수 24명은 6일과 7일 이틀 동안 연습라운드를 하고 8일부터 11일까지 경기를 치른다. 대신 조직위원회는 대회가 끝난 다음 날인 12일과 3일 이틀 동안 스폰서 기업 관계자 등 대회 개최에 도움을 준 인사들을 초청해 골프 대회를 연다. /연합뉴스



텍사스, 지구 우승 매직넘버 ‘2’

에인절스 잡으면 확정...추신수 8경기 연속 안타

미국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가 4년 만의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우승에 성공했다. 텍사스는 지난 30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와의 홈경기에서 홈런 3방을 앞세워 6-2로 이겼다. 지구 2위인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가 이날 오글랜드 애슬레틱스에 7-8로 패함에 따라 텍사스는 우승에 필요한 매직넘버를 한꺼번에 2개나 털어냈다. 10월 1일부터 홈에서 에인절스와 4연전을 끝으로 정규리그를 마감하는 텍사스는 이에 따라 1일 에인절스를 잡으면 현재 남은 매직넘버 2를 다 없애고 사실상 우승을 확정 지을 수 있다. 텍사스는 86승 72패, 에인절스는 83승 75패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텍사스의 2번 타자 우익수 출전한 추신수는 4타수 1안타를 치고 1득점을 올려 팀 승리에 힘을 보탰다. 추신수는 9월에만 타율 0.404(104타수 42안타), 홈루율 0.515, 홈런 5개, 20타점을 올리고 화려한 한 달을 마감했다. 특히 9월 이래 28경기에서 67차례나 홈루해 역대 메이저리그 9·10월 최다 홈런 기록 경신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 부문 최고 기록은 타이 코브가 1923년 세운 79회다. 추신수는 남은 4경기에서 12번 더 홈루하면 코브의 기록과 동률을 이룬다. 추신수는 0-2로 뒤진 1회 1사 주자 없는 첫 타석에서 깨끗한 우전 안타를 뽑아낸 뒤 곧바로 타진 애드리안 벨트레의 좌월 동점 투런포 때 홈을 밟았다. 8경기 연속 안타다. 3~4회에는 잇달아 방망이 중심에 공을 맞혔으나 유격수와 우익수 정면으로 간 바람에 아쉽게 땅볼과 직선타로 물러났다. 7회에는 삼진으로 돌아섰다. 텍사스는 2-2이던 3회 로빈슨 차리노스의 좌중월 솔로 아치로 균형을 깬 뒤 프린스 필더의 적시타와 마이클 나폴리의 좌월 2점 홈런 등으로 4점을 달아나 승부를 갈랐다. /연합뉴스